

보도자료



CEO 출신 농업전문가 윤명희

발로 뛰는 윤명희

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29호

TEL (02)784-4630 / FAX (02)788-0281 / E-mail : m567h@na.go.kr

[2015. 9. 22(화)]

윤명희 국회의원 농촌진흥청 보도자료

<농촌진흥청>

1. 약용작물 표준 품종을 개발하지 않을 경우 ‘제2의 백수오 사태’ 우려

- 약용작물 우량 종자 보급률 18.6%에 불과. 60개 작목 중 25개 작목만 품종 개발이 이루어짐

2. 3모작 재배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제고 도모해야 함

- 3모작 재배시 벼 단작보다 농가소득 30~58% 증가

붙임1.

약용작물 표준 품종을 개발하지 않을 경우 ‘제2의 백수오 사태’ 우려

- 약용작물 우량 종자 보급률 18.6%에 불과, 백수와 국가 종자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-
-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건강관심의 고조에 힘입어 기능성 식품수요의 급증으로 약용작물 산업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인데 안전에 대한 인프라는 구축이 안됨 -

-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(새누리당, 비례대표)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‘백수오 위품 유통’ 사례에서처럼 불명확한 종자를 통한 한약재 생산은 생산 농민 및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‘제2의 백수오 사태’를 방지하기 위한 농촌진흥청의 특별 대책을 촉구 함
- 백수오 사태는 농촌진흥청에서 표준 품종으로 보급하지 않은 백수오 종자를 농가들이 사용하면서 이엽우피소 종자가 시중에서 혼입·보급되면서 큰 문제가 발생한 만큼 약용작물 표준 품종을 개발하지 않을 경우 제2의 백수오 사태가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 함
- 실제, 우리나라 약용작물 우량 종자 보급률은 18.6%에 불과 할 뿐만아니라 60개 작목 중 25개 작목만 품종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 약용작물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한 상황 임
- 최근 웰빙·힐링 시대에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건강관심의 고조에 힘입어 기능성 식품수요의 급증으로 약용작물 산업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 임 그럼에도 한약의 국제적 표준화는 되지 않고 있으며, 한약재 오·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안전성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
- 윤명희의원은 “농촌진흥청에서 인력과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약용작물 표준품종 개발 및 재배법을 확립한다면 ‘제2의 백수오 사태’를 막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국내 한약 자원의 주권 확보와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’며 약용작물에 대한 표준 품종 개발을 촉구 함

붙임2.

3모작 재배 활성화를 통해 농가소득 제고 도모해야 함 **- 3모작 재배시 벼 단작보다 농가소득 30~58% 증가 -**

-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명희 의원(새누리당, 비례대표)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3모작을 재배시 벼 단작보다 농가소득이 30~58% 증가 될 수 있다며 3모작 재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주문 함
- 농가소득은 3천만원대에서 10년간 정체되고 있고 농가소득 비중은 29%대로 하락하여 농가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음. 더욱이, 쌀의 공급 과잉 구조에서 벼 단작만으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 임
- 이에, 3모작을 활성화 할 경우 농가소득 제고는 물론 조사료 생산을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에도 많은 기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됨. 실제, 벼 1모작의 경우 10a 당 651천원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3모작을 할 경우 10a 당 849~1,029천원으로 농가소득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남
- 윤명희의원은 “3모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배유형에 적합한 지역별 최적 작부체계 모형 개발 및 기술보급 강화가 필요하고 작목별 적정 재배 매뉴얼 작성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별 대책을 주문 함